

## 프란치스칸의 삶

### " 나는 약속한 서약의 삶을 살고 있는가?"

Francine Gikow OFS

퀸케니엘에 참석한 후 귀가하면서 나는 호란( Fr. Horan ) 신부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기 위해 서약한 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라는 도전에 대하여 성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나는 회칙을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되는 몇몇 회칙 조항에 대해 묵상을 하였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은 회칙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글은 저의 반성의 묵상을 통해 기록한 것이다.

"... **자신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 (회칙 제 7 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셨으며, 나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과는 달리 어떻게 정반대로 행동했는가? 나는 다른 이를 판단하는가? (예수님은 판단도 단죄도 하시지 않고 그 결과를 아버지 하느님께 세상 끝 날에 판단하시도록 맡기셨다) 나는 자비를 베푸는가?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분의 자비하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생각과 행위로 다른 이에게 난폭하게 대하지는 않았던가? ( 나는 때로 두려움이 선한 의도를 지배하게 해서 과거 상처의 분노로 남에게 난폭하게 대하지는 않았던가? )

"... **회원은 현세의 재물로 부터 벗어나고** ..." (회칙 제 11 조) 비록 이 회칙은 세속의물질을 멀리하라고 쓰인 것이지만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누구나 영적인 포기는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영적인 수준인 자기 자신의 탐닉과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을 멀리하는 영적인 포기까지 추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집착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기 문제의 희생물이 되기 때문이다.

회칙 제 12 조는 이러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다른 이들과 고립시키는 자신의 두려움에서 진정 자유로이 벗어납니까? 나는 나와 다른 이들, 곧 무슬림, 유대인, 이민자, 가난한 이, 마약중독자, 노숙자 같은 이들을 무서워하는가? 나는 자신의 걱정에 집착되어 형제자매들을 자유로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칙 제 11 조)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그냥 축적만 하고 있는가? 하느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 쓰는가? 그들이 아끼는 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가? 나는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를 싫어하는가? 나는 조건적인 기부를 하는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우리는 자녀들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인 재물의 관리자이다."라는 성서의 말씀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회원은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개인 생활로써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회칙 제 15 조) 정의는 단지 평등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욕구가 아닌 필요에 대한 공평함이다. 당신은 정의가 없는 자비, 혹은 자비가 없는 정의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은 같은 한 동전의 양면인가? 아마도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배타적인게 아니라, 둘다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가난한 이, 반감을 받는 이, 평판이 좋지 않는 이, 조정 불량한 이들 편을 들어야 하듯이, 정의촉진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되어 호의를 베풀어야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용기가 있고,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사막에서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는가?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함을 기억하며..."** (회칙 제 19 조) 이 회칙을 읽으면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무조건 가져다주는 사람임을 인식한다. Horan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회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는 폭력이나 전쟁을 나의 견해에 따라 용서해주는가? 나는 무조건 비폭력주의의 편을 드는가? 우리의 회칙은 구실 없는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중재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속회원은 무장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속회 제일 첫 회칙에서 유래된 관습이다. 그것이 우리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여겨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회칙 제 19 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 18 조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회원은 다른 피조물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프란치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나는하느님의 창조물을 세속적 사용을 확대하여 남용하고 고갈 시킴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하느님의 창조를 남용하지 않았어도 소홀히 한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애인이나 친구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힘, 음식, 식물과 동물을 소비한 소비자이었다.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시다시피 우리의 회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를 위한 기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회칙이 말해주고 있다. **"...회원은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칙 제 7 조)